

# 홍삼농축액 담은 마카롱... 이색 컬래버로 '맛·건강' 시너지

식품료업계, 건식식 등 합종연횡 이색 만남으로 소비자 흥미 유발 저당 제품 등 심리적 만족도 높아

식품료업계가 동종업계는 물론 건강 기능식품 브랜드, 프랜차이즈와 이색 컬래버를 실시하며 시너지를 노린다.

협업 신제품·신메뉴들은 이색 맛조 합으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당과 칼로리를 낮춰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 중에 먹어도 부담없도록 심리적 만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그릭요거트 브랜드 그릭데이는 오리온의 장수 브랜드 다이제와 손잡고 그릭 오트다이제 샌드 레시피를 공개했다.

꾸덕한그릭요거트의 대중화를 이끈 그릭데이와 오리온의 스테디셀러 다이제의 만남으로 그릭요거트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비스킷의 바삭함과 그릭요거트의 고소한 필링이 더해져 풍부한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릭데이 요거트는 그리스 정통 공법으로 유청을 제거해 밀도 높은 제형을 자랑한다. 저당, 고단백에 칼슘과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어 시니어와 자라나는 아이들의 영양간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릭데이와 오트다이제의 협업 상품



/스위트바이오 라라스윗과 정관장 찐생이 선보인 '홍삼 아이스 마카롱' /라라스윗

오리온이 새롭게 출시한 오트 다이제는 백미 대비 칼슘 8배, 식이섬유 4배, 단백질 1.5배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오트를 22.5% 넣고 통밀을 더해 고소한 맛과 영양까지 강화했다. 오리온만의 그레놀라 제조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로스팅오트를 토핑해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즐기는 수제 쿠키의 맛과 식감을 제대로 구현했다.

양사는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무료 샘플링과 리뷰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그릭데이와 오리온 양사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추첨을 통해 그릭데이 시그니처와 오리온 오트 다이제를 증정한다.

KCC인삼공사 정관장의 2030건강관리 브랜드 찐생은 저칼로리 아이스

크림 브랜드 라라스윗과 함께 이색 한정판 디저트 '홍삼 아이스 마카롱'을 출시해 주목받았다. '홍삼 아이스 마카롱'은 정관장 6년근 홍삼농축액이 들어가 건강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명절, 발렌타인데이 등 각종 행사 선물용으로 제작돼 고급스러운 패키지가 돋보인다.

정관장은 최근 양갱, 약과, 마카롱 등 홍삼을 활용한 디저트류를 잇따라 선보이며 올드한 브랜드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 저당 디저트 시장에서 활약 중인 라라스윗과의 컬래버 역시 과거와 현대의 이색적인 만남을 통해 2030타겟에게 어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헬시플레이저 트렌드에 맞춰 식품기업의 대표 제품을

활용한 고단백 저칼로리 메뉴를 선보였다.

프리미엄 분식 브랜드 스크푸드는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CJ제일제당의 대표 제품인 스팸을 활용한 메뉴 '헬트 닭가슴살 스팸 덮밥'을 선보였다.

메인 재료인 닭가슴살 스팸은 기존의 돼지고기 스팸과는 다르게 칼로리와 지방, 나트륨 함량이 낮아 보다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과 체력 증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식품·프랜차이즈 업계가 건강한 컬래버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미 익숙한 서로 다른 맛을 결합한 이색 조합이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문 위시(MoonWish)' 전시전. /현대백화점

## 현대백, '문 위시'展 개최

현대백화점은 오는 10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센터점 10층 문화홀에서 '마음에 달을 품다, 문 위시(Moon Wish) 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음에 달을 품다, 문 위시(Moon Wish) 전'은 18세기 조선시대 달항아리 백자호부터 '달'을 모티브로 한 회화 등 50여 점의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한다.

이번 전시는 둥근 달에 소원을 빌어 한 해의 행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고객들에게 예술적 영감과 작품들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 신제품 소식

### 애경산업

#### '링클케어 드라이 시트' 출시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다리미 없이 옷 주름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인다.

애경산업은 '르샤트라'에서 건조기용 '링클케어 드라이 시트'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링클케어 성분'을 함유해 건조기 사용 후 생길 수 있는 옷의 주름을 감소시킨다. 섬유에 친화도가 높은 '링클케어 성분'이 섬유 표면에 친수성을 더해주는 원리라는 것이 애경산업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애경산업은 공인기관시험을 통해 해당 제품이 옷 주름을 60%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이청하 기자

### 아모레퍼시픽 바이탈뷰티

#### 슈퍼콜라겐 올인원 부스터

아모레퍼시픽의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가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선보이며 콜라겐 시장을 이끌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바이트뷰티에서 신제품 '슈퍼콜라겐 올인원 부스터(사진)'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슈퍼콜라겐 올인원 부스터'는 액상 형태의 '부스터 앰플'과 '부스터 정제2정'을 하나로 합친 이중 제형 제품이다. 콜라겐을 비롯해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글루타치온 등 총 10가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콜라겐 단일 성분뿐만 아니라 부스팅 성분까지 모두 담았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 KD 경동제약

### 경동제약, 신규 CI 공개

경동제약이 20여 년간 사용한 기업 이미지(CI)를 새롭게 선보인다.

경동제약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기업 이념을 담은 신규 CI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변경된 CI는 건강과 희망을 상징하는 은행나무 잎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은행나무 잎 모양에 모서리가 둥근 상자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표현했다는 것이 경동제약의 설명이다.

경동제약은 새로운 CI를 공식 홈페이지, TV 광고, 인쇄·판촉물 등에 적용하고 이밖에 CI가 활용되는 모든 곳에 차례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 아워홈

#### '온더고' 서포터즈 모집

글로벌 푸드케어&케이터링 아워홈은 이색 미식 도시락 브랜드 '온더고(ONTHEGO)' 인스타그램 서포터즈 '온더고 1기'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아워홈은 뛰어난맛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온더고 브랜드와 제품 인지도 및 가치 제고를 위해 이번 서포터즈를 기획했다.

제품 홍보, 기획 등 활동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함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VCC(가치 공동창출)' 마케팅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온더고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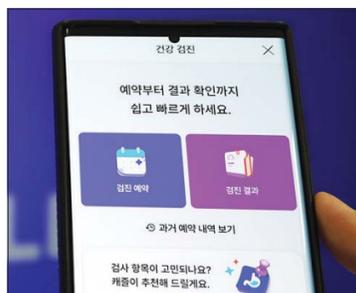
## 롯데헬스케어, 기업건강검진 서비스 확대

### 헬스케어 플랫폼 '캐즐' B2B 운영 그룹내 5개 계열사 서비스 계약

롯데헬스케어가 헬스케어 플랫폼 '캐즐'을 기업 간 거래(B2B)에서 선보이며 가입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헬스케어는 건강검진 대행 전문 기업인 에임메드와 협업해 캐즐에서 기업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롯데헬스케어와 에임메드는 공개 입찰을 통해 롯데백화점, 롯데칠성음료, 롯데마트, 롯데건설, 롯데정보통신 등 롯데그룹 내 5개 계열사와 임직원 건강검진 운영 계약을 맺었다. 오는 4월 말까지 롯데그룹 내 21개 계열사에 건강



롯데헬스케어가 '캐즐'에서 제공하는 '기업건강검진 서비스' 화면. /롯데헬스케어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임직원은 캐즐에서 '기업회원'으로 인증하면 최대 전국 363개의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예약할 수 있다. 캐즐은 성별과 연

령,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검사를 추천하기도 한다.

건강검진 후에도 캐즐을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캐즐은 사용자의 건강검진결과를 7년 동안 보관해 매년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에도 종합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캐즐은 검진 항목별 상세 결과, 종합 소견, 연도별 비교 등의 기능을 갖췄다.

이밖에 기업회원을 위한 특가 쇼핑몰, 유전자검사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선보인다. 롯데헬스케어는 롯데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롯데바이오로직스 "올해 4회에 걸쳐 신입·경력사원 채용"

### 바이오 전문인력 확보 계획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전문인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경력 및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분기별 1회, 연간 4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경력사원 채용 일정은 1·4·7·10월, 신입사원 채용은 3·6·9·12월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세 자릿수 규모의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채용 단계별 소요시간을 줄이고 취

업 준비생에게 다 차례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채용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잠재 지원자들에게 충분한 준비시간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신입사원 채용은 올해부터 통합 직군이 아닌 직무별 모집을 통해 각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전문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3월 채용은 엔지니어, IT, 인사지원 등 총 7개 직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 서류 접수는 오는 5일부터

17일까지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후 서류전형, 온라인 인적성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 등을 거친 최종 합격자는 오는 5월 중 입사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산업의 인력난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성별, 국적, 나이, 학력, 경력 제한 없이 어느 직무든 누구나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인턴십'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청하 기자